

### 공동체 소식

#### 2020 신앙여정 점검표

-2020 신앙여정 점검표를 드립니다. **개인별로 1년동안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생활, 기도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하여 보다 개선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교구대회를 통해 준비된 본당 계획으로 신앙여정 점검표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평협회의

-16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독서자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 미사안내

-18일(화), 19일(수) 평일미사 없습니다.

-미 중남부지역 사제모임 관계로 평일미사가 없었습니다.

#### 중/동부 유럽 교회를 위한 2차헌금(CCEE)

-23일(일) Aid to the Church in Central & Eastern Europe(CCEE). 중/동부 유럽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중/동부 유럽의 교회는 공산주의 체제 이후 재건을 위한 노력을 힘들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건물들이 국가에 압수당하거나 파괴되어, 신앙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사목자를 찾기 힘든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교회를 재건하고, 신학생을 양성하고, 사목과 교육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자세한 내용은 성당입구 포스터와 프린트를 참조 바랍니다.

#### 성지가지 회수

-23일(일)까지 가정 십자고상에 걸려 있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본당에 가져와 주십시오.

#### 복사단 모임

-23일(일) 미사 후 나자렛관

#### 사순시기

-재의수요일 미사: 26일 (수) 저녁 7시30분 (금육,한끼 단식)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 시기 동안 주일미사 35분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구역반모임을 통해 전달된 라이스보울(CRS Rice Bowl)을 하루 \$1씩 40일간 모으셔서 주님 수난 성지 주일(4월 5일)에 봉헌 바랍니다. Rice Bowl 없으신 분들은 구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매월 둘째 토요일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일시: 3월 14일(토) 오전 10시~12시

-장소: 135th TumStyles Thrift Store

-3월 8일까지 봉사부장에게 신청

#### 교무금 계좌이체

-교무금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장(차장)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반모임

2구역1반 21일(금) 저녁 7시 김태중 예레미아 가정

3구역1반 21일(금) 저녁 7시 박희영 카타리나 가정

4구역1반 22일(토) 저녁 7시 이우영 가브리엘 가정

구역/반장 모임 23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전례 상식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 서는 기다리십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54	217	502	68
차 주	46	211	174	44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 주	김시연 엘리사벳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 미사 복사

	시종복사 1	시종복사 2
금 주	김지안 요한 김정훈 로베르토	강미정 클라우디아 김하울 루카
차 주	정예찬 미카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가온 토마스 차한나 가브리엘라

####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 마르티노, 차상욱 펠릭스
차 주	김태중 예레미아, 강승호 아오스딩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이영민 엘리사벳
차 주	김화년 요안나, 안현숙 크리스티나, 김희진 에메렌시아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한인성당

## 복자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 오늘의 전례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의 준수와는 다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실천하는 사랑의 계명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끕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는 주님의 계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 그림 묵상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마태 5,23-24)

화해와 용서는 작은 죽음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고통을 늘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벗어나 화해와 용서를 감행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은 그들을 귀한 예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집회서, 15,15-20 <주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화 답 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제 2 독 서 : 코린토1, 2,6-10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 음 : 마태오 5,17-37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 생명의 말씀

## 더 의롭게 살기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시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원천인 당신 곁에 머물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 바로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 5,20)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는 일주일에 두 번씩 단식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때를 지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정한 613가지의 세세한 규정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 애쓰며 성실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 준수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일치하는 마음가짐까지 바라십니다.(보다 근본적인 것은 마음가짐이라 생각하셔요.) 우리가 분노에 굴복해 폭력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면, 겉으로 행사되는 폭력뿐 아니라 마음속 폭력까지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예 마음 안에 적개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말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중상과 비방으로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괴롭힘과 악플로 생기를 잃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게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인도 마다 않는 광기와 폭력, 드러나면 죄가 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능력이 되는 부조리한 현상에 개탄하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런 불합리한 모습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개심을 법이라는 제도 뒤에 감추어 두는 것은 하늘나라에 초대된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좀 억울해도 먼저 나서 용서하고 화해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 참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기에 사랑을 외면한 계명, 사랑 없이 지키는 계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계명으로는 아무도 구원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화해하고 절제하고 정직하기란 그저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대개 더 어렵습니다. 바보 취급받지 않으려면 일단 목소리를 높이고 봐야 하는 요즘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집회 15,15)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 이 말이 궁금해요



## 공현(公顯, Epiphany, Epiphania Domini)

- 예수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공적으로 드러냄.

주님 공현 대축일이 되면 성당에 설치된 구유에 등장인물이 늘어난다. 바로 동방박사다. 우리는 이날 동방박사들이 동쪽에서부터 별을 따라 찾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바친 사건을 기념하고 있다.

사실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로서 드러낸 사건은 동방박사의 경배만은 아니다. 공현에는 예수의 탄생, 첫 기적, 세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3세기경 동방교회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동방교회는 이날을 ‘주님 성탄 대축일’로 삼았다. 동방교회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이 드러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동방박사의 경배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한 첫 기적들은 다소 부차적인 주제였다. 이후 서방교회가 주님 공현 대축일을 받아들이면서 동방박사의 경배에 의미를

강조하게 됐다. 현재는 12월 25일을 주님 성탄 대축일로, 주님 공현 대축일의 다음 주일을 주님 세례 축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경배는 단순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경배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사건은 구세주의 탄생을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였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보편적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방박사를 하느님을 경배하는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여기고 있다. 말하자면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최초의 이방인인 셈이다.

하느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했다. 그래서 주님 공현 대축일의 전례는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계시됨을 강조한다.

가톨릭신문

# 말씀의 이삭

## 주님이 주신 선물 - 아내



2000년, 스물여덟 살의 저는 열정적이지만 가난한 연극배우였습니다. 평생 연극을 할 수 있다면 가난 따윈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결혼도 꿈꾸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저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흔한 말로 사랑의 불꽃이 튀어 눈이 멀어버려서 감히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사실 아내와 저는 성당 주일학교 초·중·고등부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졸업 후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만났지만, 저희에게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시간은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만난 지 3일 만에 지금의 아내에게 프러포즈를 했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3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는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의 결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미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의심이나 불안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저희 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 수입도 없는 가난한 연극배우를 사위로 받아들여 주실까?’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무얼 하며 살지?’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일단 퇴짜 맞을 각오를 하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저 ‘많이 사랑합니다’라는 말 외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런데 아버님께서 예상외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그거면 됐다. 어떻게 살아갈지는 너희 둘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약간의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허락해 주실까?’ ‘이 귀한 딸을 이렇게 쉽게 내어주신단 말인가?’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우자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 내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이야”라고요....

저의 장인·장모님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M.E. 한국 대표 부부로 활동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부부의 사랑과 갈등, 소통과 대화법 등을 공부하고 교육하고 실천하며 사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결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의 선물이 되어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한철 안토니오 | 배우

# 봉사활동 소식

## 2월 8일 (토) 첫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 가톨릭 재단 Thrift Store에서 신규 기부물품 수령, 분류 및 기존 물품 재고정리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 총 11명의 봉사자가 참여했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작게나마 되돌려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봉사부장)

